

이지상의 ‘여행과 삶’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여행기

근대의 본격적인 해외 여행기는 여행가 김찬삼으로부터 시작되었다. 1950년대 후반부터 세계일주 여행을 한 지리학자 김찬삼(1926~2003)은 30여 년에 걸쳐 선구적인 여행기를 남겼다. 그는 개인적인 여행 이야기와 함께 낯선 나라의 지리, 역사, 문화를 다방면한 문체로 소개함으로써 가난했던 시절 국민들에게 넓은 세계를 보여 주고 꿈과 희망을 심어 주었다.

우리나라에서 현대의 여행기는 1989년 1월 1일, 해외여행 자유화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때의 여행기들은 배낭여행자들의 무용담이 주요 소재가 되었다. 인터넷이 없던 시절이라 여행에 필요한 정보를 즉 주소, 교통, 돈 적게 쓰고 많은 나라 여행하기 등의 요령이 많이 다루어졌다.

뒤이어 여행 가이드북과 인터넷이 활성화되자 여행기에는 정보보다 개인의 경험과 감상이 많이 담겨졌고 시간이 가면서 분업화·전문화 되었다. 문학적 향기가 담긴 여행기, 특별한 주제를 다룬 문화 탐사기, 테마 여행기, 오지 여행기 등

에는 깊은 지식, 특별한 체험들이 담기고 여행 전문가, 학자, 예술가 등이 저자로 활동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여행기를 출판하기가 점점 힘들어진 일반 여행자들은 요즘에 블로그, 페이스북, 전자 출판을 통해 자신의 경험담을 발표하고 스스로 책을 만들고 있다. 그런 독립출판물들만 판매하는 서점들도 생겨나고 있는데 이처럼 해외여행이 시작된 지 28년째 되는 현재, 여행기와 사회 상황은 계속 변해 왔다.

여행기가 발전하면서 논란도 생겼다. 예전에는 과장된 미화, 거짓말이 섞인 허풍스러운 여행기도 사람들이 믿어 주었다. 누구나 갈 수 없던 시절이었기에 그런 글을 보고 가슴이 설레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은 독자들이 직접 현장을 답사한다. 그들은 과거처럼 여행기를 그대로 믿지 않고 직접 책과 자신의 경험을 비교하며 비판한다. 또 전문한 체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인터넷의 정보, 경험을 활용 각색하거나 편집해서 책을 내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 틀림없이 논란거리가 된다.

그럼 여행기는 ‘본 대로, 느낀 대로’ 솔직하게만 쓰면 될까?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깊이 들어가면 모호한 부분이 있다. 언어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 줄 수 없다. 언어는 개념과 이미지를 통해 우리가 소통하는 기호이지 현실 그 자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글은 지면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쓸 수 없다.

우리의 뇌는 현실을 각자의 가치관이나 취향에 따라 선택적으로 기억하고, 그 기억을 글로 옮길 때도 자신의 의도에 따라 편집해서 표현한다. 즉 현실이 기억을 통해 언어로 나오는데 과정에서 끝없는 ‘편집 과정’이 발생한다.

편집이란 과도한 포장이나 거짓말로 꾸미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자신의 가치관, 취향, 글을 쓰는 의도, 기분에 따라 기억을 적절하게 배치하여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관적인 여행기는 말할 것도 없고, 사실과 정보를 전하는 가이드북도 그러하며, 공정한 사실을 전달한다는 뉴스 기사도 그렇다. 이 세상에서 언어로 발표된 모든 것들은 그런 한계를 갖고 있다.

그렇다면 여행기는 현실이 담긴 객관적인 글이 아니라 쓰는 이의 의도나 감정만 담긴 주관적인 글일까? 그건 아닌 것 같다. 여행기는 객관적인 현실이 담긴 논픽션인 동시에 개인의 주관적인 감상이 섞인 글이다. 여행기를 쓸 때 언어의 속성에서 발생하는 굴절 현상, 현실과 인식 사이의 거리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거짓말을 함부로 섞어서 쓴 멋지고 재미있는 글은 피해야 한다. 독자들은 그 이야기를 현실로 믿고 착각하기에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 여행기 저자들이 자기 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이유다.

결국 진정성 있는 여행기란 현실을 ‘있는 그대로’ 옮긴 것이 아니라(그건 불가능하고), 언어의 속성에서 오는 굴절 현상을 고민하면서, 진실에 대해 접근하려는 고민, 독자에 대한 배려, 올바른 의도를 갖고 쓰는 주관과 객관 사이의 글이 아닐까? 여행기는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다. 남의 나라의 현실과 자기의 주관성, 언어의 속성에서 오는 거리를 어떻게 극복할까에 대한 고민이 늘 뒤따르기 때문이다. <여행자가>

커피한잔



조 경 완  
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요즘 보면 이상하다. 우여곡절 속에 미군 사드 배치가 진행되고 있는데, 과거엔 당연한 듯했던 극렬 반대 시위가 보이지 않는다. 2002년 경기 양주에서 미군 장갑차가 여중생 두 명을 치어 숨지게 했던 ‘효선 미션 양 사건’ 때 서울 도심에 뒤덮였던 반미·반전 시위, 2005년 평택 미군 기지 이전 반대를 주장하며 남한 내 거의 모든 진보 세력이 평택에 집결해 벌였던 극렬 쇠파이프 시위, 2011년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며 농민단체·환경단체를 비롯해 가톨릭 사제까지 동참해 벌인 강경시위들을 생각해 보면 매우 대조적이다.

반미 슬로건이나 전쟁 반대 논리들로 치자면 앞의 사건들보다 사드의 비중이 더 크면 족지 결코 작거나 한가한 사안이 아닌데도 말이다. 물론 성주 군청 앞에서 국무총리가 여류되는 사태가 벌어졌을

새가 좌우의 날개로 난다지만

때 경청은 외부 세력의 침투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통진당 재건 전문 시위꾼’으로 지목됐던 사람들은 지역 선거 후보나 현직민으로 판명 났다. 그에게는 더민주당이 사드 반대 당론 채택을 유보했다.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 세력이 장악한 야당, 현재의 정치 시장에서 이데올로기 좌표가 가장 왼쪽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정당이 미국의 MD방 구축 의혹을 벗지 못하는 사드 한반도 배치 문제에 있어서 커밍아웃을 못 하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중도를 표방한 국민의당이 사드 반대를 외치는 묘한 상황이다.

우익들도 이상하긴 마찬가지다. 안보 이슈가 있을 때 늘 등장하던 무슨 무슨 연합이니, 참전용사 모임이니 하는 보수단체들의 모습도 어디론가 사라진 듯하다. 통진당 해산 현재 결정 당시 재판소 앞에서 만세 부르던 모습 이후 도통 보이지 않으니 말이다.

사실 과거 우익들의 궂기도 축장 쇠파이프만 없었지 만만치 않았다. 노무현정부 초기 이들은 정권이 갈팡질팡하는 사이 “대북 송금에 핵무기로 돌아갔다”며 연일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이른바 보수 논객이라는 한 인사는 “친북정권에 대해 국민은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국민의 범의류는 군인도 포함된다”라고까지

했다. 노골적 쿠데타 선동이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단단한 보수 한나라당이 있었다. 좌·우가 극도의 적개심을 품고 서로를 물어뜯던 이 시기, 가히 이념적 내전 상황이라 할 만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게 된 것일까? 남한 내 극렬 좌파는 소멸한 것인가? 강경 우파들은 자체를 결의한 것인가? 도대체 지난 10년간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지난 10년간 남한 사회에는 민생의 피해만이 있었다. 잠시만 눈을 돌려 보면 못하는 사람이 너무도 많다. 못살더라도 희망이 보이면 의지를 갖고 열심히 노력해 볼 텐데 그 희망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다. 실업, 구조조정, 가계부채, 영세 자영업의 창궐, 효율 낮은 복지, 저출산, 집값 상승, 재벌의 중소기업 폭 모르기, 특권층의 지독한 부패... 지난 10년간 남한 사회를 극명하게 보여 주는 표제어이다. TV 화면에 비치는 좌우의 싸움을 보며 하루 매상 3만 원의 치킨집 사장은 또 어떤 심정이었나.

이념 싸움에 넌더리가 난 국민의 멘탈리트를 극좌와 극우는 재빨리 알아차린 듯하다. 우파 쪽이 더 빠르다. 복지 이슈에 기민하게 움직인다. 좌클릭이다. 2013년 최장집은 한 강연에서 “경제민주화와 복지 문제에 관한 새누리당이 민주당

보다 더 진보적”이라고 단언했다. 유승민 같은 이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재벌 개혁을 주장한다. 당내 반대파 심했던 김영란법도 그가 원내대표 시절 밀어붙였다. 남경필 같은 이는 심지어 국민개병제를 폐기하고 모병제로 가자고 주장한다. 안보에 목숨 걸던 우파들 한가운데에서 이런 주장들이 자연스럽게 튀어나온다.

좌파들의 우클릭도 현란하다. 민주당은 일찍이 이석기·이정희·김선동 등과 선을 그었다. 추미애는 2009년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맡아 ‘고용 유연성’으로 대표되는 노동법 개정안을 자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시켰다. 문재인은 87년 헌법에 119조 2항, 즉 경제민주화 조항을 넣은 것 외에 ‘퍼펙트 보수’의 길을 살아 온 김종인을 임시 당 대표로 끌어 들였다. 그제 대국민 눈속임이었거나 말거나 더민주주는 이념의 스펙트럼을 훨씬 넓혔다.

좌와 우가 서로 상대의 방향으로 스텐스를 넓혀 가는 것은 좋은 일이다. 거의 도단에 빠진 민생의 눈치를 보느라 그랬던 극단주의에 스스로 혐오를 느껴서 그랬던 좌와 우, 영남과 호남이 퓨전으로 섞이는 건 기대할 만하다. 새는 좌우로 난다지만 비행하던 새가 최고 속력을 낼 때 보면 두 날개를 모두 동맹에 붙이지 않던가.

기 고

독일 와텐해 갯벌방문객센터가 부러운 이유



김 준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원

독일 와덴해 갯벌을 이해하기 위해서 꼭 들려야 할 곳이 갯벌방문객센터다. 약 60여 개의 센터가 있고, 규모가 작은 것까지 포함하면 셀 수 없을 것 같다. 숙소와 레스토랑에서 갯벌 관련해서 제공하는 정보도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다. 센터는 해당 지역 갯벌은 물론 와덴해 3국의 갯벌정보로 가득하다.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그곳에는 기후변화, 폭풍과 파도 등 재난, 생물종의 변화 등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살펴볼 수 있고 소재에 따라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곳도 있다.

우리나라에도 강화, 시화, 고창, 증도, 무안, 순천, 부산 등에 갯벌방문객센터가 있으니 마냥 부러워 할 일은 아니다. 더구나 규모에서는 와덴해에 뒤질게 없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생각이 바뀐다. 처음 만 들어진 전시물은 교제하기 어렵고, 이용

하는 사람에게 공부를 강요하고, 시설물과 연계된 프로그램이 없다. 와덴해 갯벌방문객센터를 보자. 전시물이 철저하게 프로그램 중심이며, 필요할 때 새로운 전시물로 교체할 수 있도록 가변성을 충실히 했다.

또 여행객이나 교육생 중심으로 전시되어 연령별 성장주기별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곳도 있다. 아이들이 뛰어 놀 수 있는 형태로 전시공간을 배치한 곳도 있다. 그래서 박제화 되어 있지 않고 살아 움직이는 곳이다.

정말 부러웠던 것은 그곳에 마련된 수족관과 실험실 그리고 공구실이다. 아무리 작은 센터라도 반드시 갖춰져 있다. 수족관을 볼까. 몇 평되지 않는 공간이라도 수족관을 만들어 갯벌생물과 조수간만의 차이를 관찰할 수 있게 만들었다. 게다가 아이들이 직접 만져볼 수 있도록 배려한 곳도 있다. 전시 목적이 교육이니 관리상 문제가 생기는 것은 감당하겠다는 의도다.

만질 수 있는 것은 불가사리, 조개, 게 정도지만, 관리가 필요한 갯벌생물이나 어류 등은 눈으로만 볼 수 있다. 물티마에 서는 작은 새우를 손 위에 올려 보여주며 해양생태계의 먹이사슬을 설명해 주었다. 그것만으로도 아이들의 관심을 사로

잡는데 부족함이 없다.

실험실에는 현미경은 기본이고, 실험용 갯벌생물을 보관하는 수족관이 별도로 있는 곳도 있다. 인공해양생물로 내부를 살펴보고 직접 갯벌생물로 실험도 한다. 간단하게는 패류를 이용해 탄탄 바닷물이 정화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것부터 부작생물들이 바닷물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먹이활동을 하는지 대형스크린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물론 스마트폰을 이용해 현장에서 그 과정을 찍을 수 있다.

갯바위에 붙어 죽은 것처럼 보이는 파개비가 물이 들어오면 껍데기 위쪽 입구를 열고 만개를 휘저으며 먹이를 찾고 산소를 섭취하는 모습을 상상해보라. 아이들이 탄성을 지른다. 갯벌에서 자신이 직접 채집해온 것이라면 만족도는 더욱 높아진다. 알게 되면 사랑하니, 그리고 다시 보는 갯벌은 그 전에 보았던 그 갯벌이 분명 아니다.

가장 부러운 것은 공구실이다. 독일의 니더작센주에 위치한 세계유산센터 공구실에는 상상 이상의 공구들이 배치되어 있다. 전기톱은 물론 제재소나 있는 동근톱까지 갖추었으니 다른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도대체 갯벌센터에 왜 이런 공구가 필요할까. 몇 년 전 와덴해 사투

국에서 프로그램 유료 차 우리나라를 방문해 시연행사를 가졌다. 시연이 끝나갈 무렵 참가자 한 분이 손을 들고, 그 교재를 구입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처음에는 독일인 코디네이터가 질문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 재차 같은 질문을 좀 더 길게 하고 나서, 홈페이지에 가면 교재가 모두 있다고 답했다. 비슷한 질문은 다른 안내인들에게도 이어졌다. 그들은 필요한 교재를 대부분 공구실에서 직접 만든다. 간단한 제작과정은 홈페이지에 소개해 둔다.

우리 갯벌방문객센터는 물티마, 예코마레, 질트 등 와덴해의 대규모 방문객센터를 모방했다. 여기에 갯벌의 이용방식이 너무 다른데 전시물과 프로그램도 복사했다. 센터는 물론이고 전시품이 박제화 되는 것은 시간문제였다. 다시 많은 예산을 들여 갯벌센터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수행했다. 대책도 와덴해에서 찾다 보니 그 나뭇잎 그 밭이 될 수 밖에 없었다.

社 說

‘아트광주’ 역대 최대 관람객 기록했지만

광주 유일의 국제 아트페어인 ‘아트광주 16’(아트광주)이 역대 최대 관람객 8만여 명, 판매액 30억 원(작품 800여 점)을 기록하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올해는 13개국에서 74개 갤러리가 참여했고 개인 작가 부스도 114개나 설치됐다. 특히 이번 행사는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에서 처음으로 열린 데다 국내외 유명 갤러리들의 참여가 늘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 할 만하다.

하지만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불편한 관람 동선 등 운영 면에서 적잖은 문제점을 남겼다. 무엇보다 행사가 예술극장이나 문화창조원 등 여러 공간에 분산 배치된 탓에 관람 동선이 중복돼 큰 불편을 초래했다. 관람객이 예술극장에서 갤러리 부스를 관람한 후 문화창조원에서 열린 개인부스를 보려면 밖으로 나가 다시 입장하는 등 자연스러운 관람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이다.

또한 개막식인 아트파티는 주객이 전도됐다는 비난을 받았다. 서울 지역의

VIP들을 대상으로 작품 판매를 유도하기 위해 기획됐지만 수백여 명이 한꺼번에 몰려들면서 좌석 배치와 행사 준비 등 곳곳에서 운영 미숙을 드러낸 것이다. 이들 상당수가 문화예술계의 오피니언 리더라는 점에서 아트광주에는 득보다 실이 더 많았다는 얘기도. 실제로 VIP 초청 이벤트가 작품 판매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아트광주는 비엔날레 또는 일반 전시회와 달리 작가들의 작품 판매가 주목적이다. 판매 실적이 저조한 아트페어에 갤러리와 작가들이 참여를 망설이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따라서 아트광주를 본연의 취지에 맞게 활성화시키려면 갤러리와 작가 및 시민을 이어 주는 미술시장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매년 주관기관을 바꾸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전문성을 갖춘 전담 인력이 전시 계획과 운영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무안공항 국내선 수요 예측과 통합의 당위성

무안 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서남권 거점공항 육성의 취지로 문을 열었지만 아직 이름값을 못 하고 있는 무안공항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제안이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옛그제 광주전남연구원 주최로 열린 공항 활성화 전략 2차 토론회에서는 광주·무안 공항의 통합 효과가 집중 거론됐다. 김영명 항공교통연구본부장은 무안공항이 광주공항과 통합된 후 제주·김포 노선을 100% 유지할 경우 2020년 무안공항 국내선 수요는 연간 237만3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절반이 유지될 경우 수요는 212만7000명이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지난해 말 광주공항·무안공항 국내선 탑승 인원은 각각 160만5000명, 12만9000명 등으로 모두 173만4000명이었다. 이를 감안해 두 공항 국내선을 무안으로 단일화하면 시너지 효과가 그 만큼 커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2035년에도 광주의 제주·김포노선 50%가 유지되면 244만 명으로 예상돼 현 청주공항의 국내선 수요 245만 명과 대등한 수준이 된다고 예측했다.

이는 광주·무안공항 통합의 당위성을 말해 준다. 즉 광주공항의 군 공항 이전은 기정사실화됐지만, 민간공항 기능 단일화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기대 효과를 예견해 당위성을 강조한 것이다. 두 공항을 하나로 묶은 다음 광주송정역에 무안공항 탑승 수속이 가능한 ‘광주 송정역 도심공항 터미널’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결국 무안공항을 서남권의 중심 공항으로 활용하고 광주공항은 무안공항으로 통합 추진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김 본부장은 통합 추진 시기는 협의체를 구성해 광주·전남·도·무안군 등이 긴밀하게 협의해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안공항을 살리는 길은 통합이라는 사실을 이번 연구에서도 재확인하게 된다.

無 等 鼓

강아지 ‘원둥이’는 말이 없다. 묵묵히 화장실을 청소하고, 폐지를 줍는다. 공사장에서 잡일도 한다. 말을 하는 건 사람뿐이다. “우리 일감도 부족한데, 강아지 인부하고는 일을 나눠 할 수 없다”는 아저씨도 있다. 할머니를 도와 폐지를 줍는 친구를 ‘거지’라고 놀리는 아이도 있다. ‘원둥이’는 버림받았다. ‘너무 커 버린 개를 키우기 어렵고, 이제 고양이나 키워 볼까’ 생각했던 어느 가족으로부터. 그를 따뜻하게 품어준 이는 폐지 줍는 할머니와 코짍짍이

‘원둥이’

이’는 공사장 잡부로 청소 용역 일을 곧잘 하곤 한다. 자신도 일을 하다 다치지만 병원비가 무서워 ‘죽’ 참고 만다. 원둥이는 윤필 작가의 만화 ‘원둥이’의 주인공이다. 연필로 쓱쓱 그린 주인공들에게선 따뜻함이 느껴진다. 원둥이와 등장인물들은 서로가 서로를 보듬는다. 공사장에서 만난 할아버지는 원둥이가 보관해 주지 않겠나? 자네가 힘들고 외로울 때 조금은 힘이 되어 줄 걸세.” 발을 다친 원둥이 뒤편까지 일어난 할아

버지는 결국 세상을 떠난다. 할머니와 미래를 위해 하모니카를 연주하는 원둥이 눈에선 ‘한줄기’ 눈물이 흐른다. 묵묵히 일하는 원둥이에게서 ‘아버지의 뒷모습’을 본 누군가는 “좀 더 살아야겠다”며 마음을 다잡는다. 대학교수는 청소하는 원둥이를 만나면 “수고 많으십니다” 인사를 건넨다. 챔피언 직업소개소 사장님은 원둥이 치료비를 몰래 내준다.

키 작은 원둥이는 자판기 위에 올려놓은 음료수 캔을 치우느라 고생한다. 만화를 보며 다짐한 게 하나도.

휴지는 꼭 휴지통에.

만화를 읽고 나면 나처럼 애완동물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원둥이를 한번 꼭 안아 주고 싶어진다. 미래처럼 원둥이에게 꼭 안기고고 싶어진다. ‘원둥이’는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여러 사람에게 한번 읽을 것을 권하는 중이다. 누군가는 “보는 내내 마음이 찢겼고, 서로 한 뼘씩만 걸을 내어주며 살면 좋겠다”는 말을 전했다. 나이 탓이라고, 계절 탓이라고 돌려 보지만 읽는 내내,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기 힘들었다. 눈물이 많은 이들께겐 화장지가 필수다. /김미은 문화1부장 mekim@

| 光 州 日 報                                      |                                  | The Kwangju Ilbo          |                                          |
|----------------------------------------------|----------------------------------|---------------------------|------------------------------------------|
|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                                  | 주필 李洪載                    | 편집국장 程厚植                                 |
|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                                          |
| 대표전화 222-8111                                |                                  | 광고문의 062-227-9600         |                                          |
| 편집국안내<br>(대표 FAX 222-4918)                   | 경 제 부 220-0663<br>(FAX 222-4938) | 경영지원국<br>(FAX 222-8005)   | 문화사업국 220-0541<br>(FAX 222-0195)         |
| 편 집 부 220-0649                               | 문 화 부 220-0661<br>(FAX 227-9600) | 기획관리국 227-9600            | 독자서비스국 220-0551<br>(FAX 227-9500)        |
| 정 지 부 220-0632                               | 문화미디어부 220-0664                  | (FAX 220-0536)            | 서 울 지 사 02-773-9331<br>(FAX 02-773-9335) |
| 사 회 부 220-0642                               | 체 육 부 220-0697                   | 사 진 부 220-0693            |                                          |
|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                                  |                           |                                          |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                           |                                          |